

# 大學生의 餘暇活動實態에 關한 研究

— 地方(濟州道)大學生을 中心으로 —

裴 英 浩

## 目 次

- |                |              |
|----------------|--------------|
| I 緒 論          | IV 餘 暇       |
| II 研究方法        | 1. 餘暇와 技能    |
| 1. 調查對象者 및 方法  | 2. 大學生의 餘暇活動 |
| 2. 設問內容        | 3. 各클럽의 組織活動 |
| 3. 研究 및 考察     | 4. 音樂鑑賞 活動   |
| III 生活과 레크리에이션 | 5. 映畫의 影響    |
| 1. 勞動과 生活革新    | V 結 論        |
| 2. 勞動의 機械化     |              |

## I 緒 論

어느 時代 어느 國家를 莫論하고 한 國家의 運命은 그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 來日의 主人公인 젊은이들을 健全하고 올바르게 善導하고 育成한다는 것은 國家 將來의 發展과 運命을 左右하는데 있어서 重大한 課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重大한 使命과 國家의 運命을 지닌 우리 나라 젊은이들 가운데는 흔히 現實社會와 既成世代에 對한 不信, 否定, 反抗意識이 차츰 늘어가고 있으며 現實社會에 對한 滿足을 느끼지 못한 不安한 狀態에 있는 듯 하다. 그리고 特히 靑少年의 非行과 犯罪는 增加一路의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原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既成世代는 그들에게 責任과 批難을 하기에 앞서 그들의 非行과 犯行의 責任이 보다 우리 既成人들에게 있다는 것을 反省할 때 그들 靑少年들을 善導한다는 것은 우리 既成人들에게 맡겨진 一大課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筆者는 여기에 내일의 國家를 짊어질 大學生들을 相對로 그들의 레크리에이션을 通한 自己啓發을 찾도록 餘暇活用方案을 研究하여 되도록 健全한 餘暇生活로서 보다 能率的인 일(공부)에 힘쓸 것을 바라며 본 연구에 着手하였다.

## Ⅱ 研究方法

### 1. 調査對象者 및 方法

地方學生(濟州道)을 對象으로 1,500名에게 設問紙를 配付하였던 바 1,066名 것만이 回收되어 이 回收된 枚數만을 選定하여 設問調査를 하였다.

### 2. 設問內容

應答者의 狀況調査를 年齡과 性別로 나누고 다시 이것을 各專攻別로 學生數를 調査하였다. 設問事項으로 直接해 본 적이 있는 餘暇運動을 여러種類로 分類했으며 週末에 餘暇活動을 즐긴<sup>9</sup> 다음에 느끼는 증상과 原因에 對한 것도 넣어 보았다.

### 3. 研究 및 考察

研究對象者들로 하여금 한 사람이 여러가지를 증부해서 체크했으므로 여러 種類의 것을 해 본 것 中에서 가장 많이 分布된 面을 考察하기로 하였다.

이중에서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즐겨하는 餘暇活動은 우리 生活에서도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고 짐작되는 種目이며 學生들의 餘暇活動에서도 역시 가장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 Ⅲ 生活과 레크리에이션

오늘날 高度化된 機械文明은 우리 人間의 全般의 生活樣式에 一大變革을 이르게 왔다. 그러므로 恒時 緊張과 不安에 쌓이고 있다. 그러기에 現代는 緊張과 不安의 時代라고도 한다. 이러한 각박한 生活속에서 시달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現代人들은 現實逃避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 社會가 近代化하면 할수록 現實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법이다. 그들은 社會의 不安, 他人에 對한 不信, 욕구불만, 心理的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쓸 데 없는 공상에 잠긴다든가 모험, 無錢旅行, 飲酒, 剽場, 流行歌 등을 通하여 排出口를 찾고 있다. 요즘 흔히 말하는 文明患者, 즉 高血壓, 心臟病, 동맥경화증, 神經痛, 노이로제의 要因이 이 現代生活에서 오는 Stress에 起因되고 있다는 것이다. 現代病患者의 數는 날로 增加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Stress를 해소하고 現代病 患者의 數를 줄이는 길은 기분전환을 할

수 있고 愉快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을 권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요즈음 精神科 専門의들이 레크리에이션의 價値를 높이 評價한 것으로 보아 우리의 生活에서 노동과 아울러 필수적 요소로 生活化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모여 音樂, 연구, 스포츠, 談話, Folk Dance 등이 등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活動을 즐기는 가운데 자기만의 우월감이나 편견, 질투, 不和, 不安, 緊張 등이 사라지고 親善, 友情, 理解, 協助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참되고 아름다운 人間關係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이 우리에게 緊張과 과속 責任을 부과한다면 레크리에이션 活動은 自由, 解放, 自發의인 面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노동과 레크리에이션은 서로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병행하지 않고서는 愉快한 生活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이 過하고 生活에 시달릴수록 레크리에이션의 必要性은 더욱 強調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1. 勞動과 生活革新

産業의 發達 및 노동의 自由化, 다시 말해서 技術革新과 大量生産을 위한 生産方式의 革新에 따라 勞動時間은 급격히 단축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先進國 뿐만 아니라 全世界의인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確實히 한 사람의 하루의 生活 時間 構成을 보면 先進 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 노동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비노동시간이 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수면, 食事 等の 生理的 必要를 위해 消費되는 時間은 一定하다고 하면 增大하는 것은 餘暇일 뿐이다. 더구나 教育年限의 延長, 停年制의 變化, 平均壽命의 延長 等 여러가지 要素가 합쳐져서 한 사람이 一生동안 누릴 餘暇의 量이 增大한다는 것을 생각할 必要가 있게 되었다. 프랑스의 未來社會學者 Jean Fourastie는 한 사람의 一生의 實際 노동시간은 42,000시간 이라고 計算하고 있다. 즉

- 1週의 노동시간=30시간 (6시간×5일)
- 1年の 노동주수=40주 (1년은 52주)
- 一生의 노동년수=35년으로
- 一生의 노동시간=30시간×40주×35년=42,000시간
- 1年の 노동일 200일 휴일은 165일

위와 같은 생각은 분명히 진보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전에는 餘暇階級이었던 社會의 上層部 사람들이 오히려 점점 오랜 시간을 일하게 되고 數많은 一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逆現象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Mass Leisure현상이다. 여기에 더해져 절대적인 人口增加와 人口의 都市集中이라는 현상이 相乘의인 效果를 내어서 餘暇의 全体量이 急激히 增大한다. 이러한 事態의 總체를 取扱하기 위해서는 餘暇의 정의란 社會集團單位

나 構成員의 긴 생애의 宇宙的인 量的 정의와 質的 정의를 합친 調和된 정의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은 世界的인 노동시간의 단축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表1〉 세계 주요 국가의 適當 勞動時間

國名	미 국	카나다	영 국	서 독	프랑스	일 본
1955년	40.7시간	41.0	46.4	48.8	44.7	48.4
1956 "	40.4 "	41.0	46.0	47.8	45.4	50.2
1957 "	39.8 "	40.4	45.8	46.4	45.7	50.2
1958 "	39.2 "	40.2	45.3	45.5	45.1	50.2
1959 "	40.3 "	40.7	46.1	—	44.8	50.5

특히 우리나라 女性의 經濟活動 인구는 先進國과 比較하여 조금도 뒤떨어진 상태가 아니다. 한국이 38.2%임에 대해 日本이 50.9%, 미국 39.8%, 캐나다 33.6%, 프랑스 33.4%로 女性活動이 增加됨을 알 수 있다.

## 2. 勞動의 機械化

노동과 대립하는 餘暇는 第一次 産業革命에 의해 藝術家와 勞動者로 分化하면서 부터 始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근래의 急速한 餘暇의 增大가 自動機械의 生産에 의한 單조한 作業의 節約에서 시작되고 Computer의 자동관리에 의한 作業의 進폐와 계속 진행중인 第二次 産業革命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은 오늘날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革命은 生活水準의 向上을 희생하는 일 없이 餘暇의 增大를 이룩한다. 이 파급적인 効果는 직접 生産業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번져가고 있다. 이 경향은 계속되고 變치 않을 것이다. 餘暇의 增大를 可能하게 만든 것이 Automation과 Cybernetics나 Plastic Computer 등이 대표되는 近代의 産業技術의 發達이라는 것은 누구나 의심치 않는 사실이기는 하나, 이것은 하나의 外的條件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첫째로, 일하는 數많은 사람들이 餘暇의 增大를 必要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願하고 바래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歷史가 始作된 이래 人類의 所望이었다. 적어도 다음날의 노동을 爲해 체력을 회복하기에 족하는 休息時間이 必要하다고 느끼기 始作하면서 주로 産業革命以後 노동과 休息과의 分離나 作業의 分할에 의해 노동자가 노동속에서 기쁨을 찾아내기 힘들게 되면서 單조로운 作業 그 자체에서 났을 수 있으면 解放되고 싶은 人間회복의 要求가 생기게 되기까지 원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소원은 가혹한 노동조건하에 있는 發展 途上 國家에서나 近代의 餘暇水準에 到達하고 있는 先進諸國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餘暇의 增大를 가져온 둘째번 原因은 資本主義의 經

제구조 중에서 볼 수 있다. Mass Leisure는 당연히 Massproduction과 Mass consumption과의 불가분의 關係다. 生産된 것은 消費되지 않으면 안된다. 現代의 노동자에게는 소비활동은 노동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무가 되고 있다. 餘暇의 增大는 노동자의 개인적인 소망일 뿐 아니라 資本主義 體制에 있어서는 필연적인 事實인 것이다.

## IV 餘 暇

### 1. 餘暇와 技能

여가를 결정짓는 것은 적어도 量과 質 또는 形式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형식만을 지나치게 重要視하므로 質的인 것, 또는 量的인 것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時間으로서의 여가의 정의가 애매한 것은 행동양식으로의 여가를 소홀히 생각한 데서 생겨난 것이다. 근대적 여가에 관해서도 노동하고 남은 時間에서 이 시간 저 시간을 뺀 것을 取扱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정의인 것이다. Reisman은 “현대에 와서 놀이는 이미 단순한 일하는 間隔을 生活속에서 빼냈을 때에 남은 것이 아니라 그자신 생활기술에 있어서 숙련과 能力을 개발하는 領域으로 되어 오고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형식의 문제, 質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옛부터 人間은 自由로운 時間을 여러 形態로 利用해 왔다. 그러나 mass Leisure 時代에 들어 와서 많은 사람이 많은 時間과 많은 수단을 가지게 된 오늘날, 같은 餘暇 利用法의 多樣性을 일찌기 歷史에서 본 예가 없다.

안방에 누워 뒹구는 것으로부터 해외여행과 같은 많은 양의 시간과 費用과 精神的 Energy를 必要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또 TV나 영화 쇼를 보는 것 같은 수동적 행위에서 일요木工이나 庭園師 같은 積極的인 行爲에 이르기 까지, 또 바둑이나 장기에서 부터 登山이나 海水浴과 같이 直接 自然에 접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數많은 種類가 있다. 이렇게 다종다양한 餘暇活動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求하는 것일까? 그 目的은 무엇일까? 餘暇의 三大技能으로서 노동에 依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휴식(Relaxation) 공백의 시간을 메꾸기 위한 기분전환(Diversion), 인격개발(Development)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 2. 大學生의 餘暇活動

餘暇란 原則的으로 그 國家의 産業 乃至 社會構造의 테두리 속에서 社會的 分業에 參加하거나 또는 參加할 수 있는 成員에게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幼年이나 少年層, 또는 高齡의 年老層에 있어서는 知能과 生理의 兩側面에서 볼 때 不得已 여가에 대한 參加를

完全히 是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扶養을 받는 存在들로서 知能面에서도 健全한 狀態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여가를 즐기는 收容態勢가 完全히 못하리라고 본다. 生理的 面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老幼에 있어서의 身體條件이란 여가를 有效하게 利用하기에는 收容態勢가 完全無缺하지만 다만 產業構造속에 直接 참여하지를 못하고 따라서 勞力の 代價로서의 一定한 所得이 없는 集團成員이 있다. 즉 產業社會의 움직임이나 進展과는 別로 直接關係는 없다 하더라도 反面에 어느 程度의 時間的 餘裕와 거의 完全한 知能과 健全한 肉體的 條件을 갖춘 集團이 있다. 이것이 곧 學生集團이며, 特히 그것은 大學生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符合되는 事實이다. 그러나 이들이 여가를 利用하자면 우선 第一次 手段이 돈이겠는데,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들이 가진 돈이란 直接 그들이 生産部門속에서 獲得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源泉은 그들의 保護者와 間接的으로 連結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消費를 隨伴하는 이들의 여가이용의 方法은 그들의 父母의 所得水準에 依存하게 될 것이고 餘暇利用의 態度는 學生自身の 價値觀과도 密接한 關聯性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國民階層間에 있어서의 價値觀의 差異는 所謂 젊은 世代의 象徴이라고 할 수 있는 大學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는 點에서 調査對象者를 學生層에 잡아 본 것도 過히 無意味한 일은 아닐상 싶다. 거기에서 學生層에는 本意이건 本意 아니건, 또는 많건 적건 간에 그들대로의 餘暇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來日의 主人公인 젊은이들을 健健하고 올바르게 善導하고 育成한다는 것은 國家 將來의 發展과 運命을 左右하는 데 있어서 重大한 과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음은 여자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實態상황을 表로 나타낸 것이다.

〈表 2〉에서 보면 등산, 탁구, 정구 등이며 중고교생활의 정규수업을 통한 分野인 배드민턴, 배구, 농구 등이 다음 順位로 높은 比率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쩍 늘어나는 水泳人口의 增大現象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반대현상으로 가장 작은 比率를 나타내고 있는 여가운동들은 역시 經濟的인 事情이 許諾하는 限度內에서 즐길 수 있는 種目들이기 때문에 韓國의 가정 경제 生活이 이런 여가운동을 즐길 수 없는 段階에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고, 또 유도, 태권도, 펜싱, 검도, 궁도, 보디빌딩 등은 男性들의 餘暇活動이라고 認識되어 있으므로 아직 女大生의 餘暇活動에서는 지극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앞에서도 言及했지만 한 사람이 여러가지를 고를 수 있었음을 알려 둔다. 38개의 많은 項을 提示했기 때문에 集中的으로 편중되어 있는 느낌은 못 보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점수를 가지고 있는 몇몇을 分析해 보면 우리 나라 文教 現實情에 맞추어 國民學校, 中高等學校 學窓時節을 通해 工夫에만 급급해 온 19~22세의 女大生들의 運動不足에서 오지 않나 생각해 본다. 10.8%의 높은 比率를 차지하고 있는 “몸이 피곤하고 나른하다”에서 생각해 볼 때도 위에 言及했던 대로이다. 앞으로 자라나는 學生들을 비추어 볼 때 지금과는 많은 差異를

연령과 직접해 본 적이 있는 여가 활동과의 관계 (여학생)

<表2>

연령		18	19	20	21	22	총 합	%
스포츠								
남	시	3	10	12	6	2	33	3.4
능	산, 캠 핑	5	21	34	14	8	82	8.4
자	전 거 하 이	1	10	14	4	1	30	3.1
당	구	1	1	3	3	1	9	0.9
보	울 령	4	12	20	11	5	52	5.3
골	프	0	0	2	1	0	3	0.3
탁	구	6	26	34	15	9	90	9.2
배	드 민 턴	6	24	34	15	8	87	8.9
정	구	2	11	15	9	7	44	4.5
배	구	5	24	34	15	8	86	8.8
송	구	0	10	18	8	2	38	4.0
농	구	4	20	26	11	6	67	6.9
축	구	0	3	3	0	0	6	0.6
야	구	3	14	15	5	2	39	4.0
수	영	5	24	34	15	8	86	8.8
로	울 러 스 케 이 트	0	0	1	0	0	1	0.1
터	치 불	0	1	0	0	0	1	0.1
줄	다 리 기	2	6	20	7	4	39	4.0
트	벤 프 링	5	25	26	11	8	75	7.7
출	넘 기	1	0	0	3	2	6	0.6
사	격	2	5	10	6	0	23	2.4
스	카 이 다 이 빙	0	0	1	0	0	1	0.1
승	마	0	0	0	0	0	0	0
사	냥	0	0	2	1	0	3	0.3
펜	싱	0	0	1	1	0	2	0.2
검	도	0	0	0	0	0	0	0
유	도	0	0	0	0	0	0	0
태	뎀 도	0	0	1	0	0	1	0.1
보	더 빌 덩	0	0	0	0	0	0	0
궁	도	0	2	3	0	0	5	0.5
관	광 여 행	2	16	26	10	6	60	6.1
기	타	0	1	3	0	0	4	0.4
총							976	100 %

〈表3〉 연령과 주말에 여가활동을 즐긴 다음에 느끼는 것과의 관계

설문내용	연령					총합	%
	18	19	20	21	22		
머리가 아프다	2	6	3	2	0	13	2.7
팔치가 아프다	1	1	0	2	0	4	0.8
몸이 피곤하고 나른하다	1	7	19	9	7	53	10.8
몸이 거뜨하다	1	5	4	3	1	14	2.9
몸이 무겁다	1	7	3	3	0	14	2.9
입맛이 좋아진다	2	13	13	7	4	44	9.0
입맛이 떨어진다	0	1	2	2	0	5	1.0
입맛이 변하고 냄새가 난다	0	0	0	0	0	0	0
입안에 헛 바늘이 생긴다	1	2	3	1	0	7	1.4
하품이 나거나 졸린다	2	9	7	7	3	28	5.7
근육통이 생긴다	2	8	11	4	2	27	5.5
눈이나 기타 근육에 경련이 온다	0	8	2	0	0	10	2.0
어깨가 결리거나 다리에 힘이 없다	2	7	8	4	3	24	4.9
일에 능률이 난다	1	4	3	2	0	10	2.0
정신이 산만하다	0	3	3	0	0	6	1.2
일에 별 지장이 없다	3	7	11	3	2	26	5.3
대화 하기가 귀찮아 진다	2	1	1	1	0	5	1.0
차분하게 앉아 있을수가 없어 괜히 불안하다	0	1	0	1	0	2	0.4
평소보다 잘 안들리거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	0	1	2	1	0	4	0.8
허리가 아프다	1	4	3	3	2	13	2.7
곧잘 감기에 걸린다	1	4	2	0	0	7	1.4
소화 장애가 온다	0	4	0	2	0	6	1.2
곧잘 실사가 난다	0	1	0	1	0	2	0.4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0	2	0	2	0	4	0.8
현기증이 난다	0	3	1	2	0	6	1.2
몸이 약간 붓는듯 하다	1	6	3	4	0	14	2.9
눈에 핏발이 서고 피곤하다	0	6	7	2	2	17	3.5
기분이 상쾌하다	3	9	12	6	3	33	6.7
짜증이 난다	0	2	0	1	0	3	0.6
밤에 잠이 잘 안온다	0	6	1	2	2	11	2.2
밤에 잠이 잘 온다	3	13	16	9	3	44	9.0
일에 능률이 안난다	0	1	1	2	1	5	1.0
정신이 불투명 하다	0	1	0	2	0	3	0.6
일에 의욕이 생긴다	0	4	2	3	1	10	2.0
간단한 일이 생각이 잘 안난다	0	0	2	0	0	2	0.4
일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0	3	1	0	0	4	0.8
평소하던 간단한 일인데 실수한다	0	2	3	0	0	5	1.0
식은땀이 난다	0	3	0	1	0	4	1.8

489 100

남는 餘暇活動을 즐길 것으로 기대된다. 처음에는 무언가 피곤하고 나른할지도 모르지만 여가활동 회수가 번번히 이루어지면서 익숙하게 될 것으로 본다. 다음에 높은 比率을 차지



하는 것은 “밤에 잠이 잘 온다. (9.0%)” “입맛이 좋아진다. (9.0%)” “氣分이 상쾌하다. (6.7%)”인 데 역시 餘暇活動을 즐기므로 더욱 일에 能率을 올릴 수 있는 점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반대현상으로 가장 낮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보면 “곤잘 설사가 난다 (0.4%)”라는 項目이 낮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지만, 注目할 것은 餘暇活動을 즐기고 난 다음의 食物攝取問題도 重要な 點이다.

연령과 여가 활동을 즐긴 다음에 느끼는 증상과 원인에 관한 정도

<表4>

설문내용	연령					총합	%
	18	19	20	21	22		
너무 과식했다	1	1	2	0	0	4	3.8
옷이 너무 얇아서 추웠다	1	1	2	0	1	5	4.8
너무 갑자기 많은 운동을 하였다	1	19	1	13	4	58	55.8
준비 운동이 부족 하였다	1	4	4	4	0	13	12.5
수면 시간이 부족 하였다	1	5	9	4	4	23	22.1
술을 많이 마셨다	0	0	0	0	1	1	1.0
총						104	100

위表로 살펴볼때, 表4가 表3의 問題를 더욱 더 明確히 보여 주고 있다. 너무나 갑자기 많은 量의 運動을 해서 생기는 후유증은 現代人에게 더욱 많은 壓迫感을 안겨 준다. 아직도 女大生의 여가활동에서는 절대로 不足되어 있는 活動을 볼 수 있다.

다음은 7個項目에 걸친 種類別 여가활동의 實態이다. 男女大學生들의 比率을 알아보기로 한다.

여가 이용의 종류별 비율

<表5>

항목별	구분	남 학생 (A)		여 학생 (B)		합 계 (A+B)	
		실 수	백분비	실 수	백분비	실 수	백분비
독서		105	29.4%	55	38.5%	160	32%
스포츠	츠	48	13.4	6	4.2	54	10.8
음악	감상	37	10.4	44	30.8	81	16.2
이성교제		14	3.9	6	4.2	20	4
club또는 과외활동		41	11.8	15	10.5	56	11.2
오락		65	18.2	5	3.5	70	14
기타		29	8.1	8	5.6	37	7.4
무응답		18	5	4	2.8	22	4.4
계		357	100%	143	100%	500	100%

항목별	구분	자연과학계(A)		인문, 사회과학계(B)		예능계(C)		합계(A+B+C)	
		실수	백분비	실수	백분비	실수	백분비	실수	백분비
독서	서	41	26.3%	107	34.4%	12	36.4%	160	32%
스포츠	츠	18	11.5	36	11.3	1	3	55	11
음악감상	상	27	17.3	45	14.5	9	27.3	61	16.2
이성교재	재	8	5.1	11	3.5	2	6.1	21	4.2
club 또는 과외 활동		11	7.1	39	12.5	6	18.2	56	11.2
오락	락	36	23.1	32	10.3	1	3	69	13.8
기타	타	15	9.6	20	6.4	2	6.1	37	7.4
무응답	답			21	6.8			21	4.2
계		156	100%	311	100%	33	100%	500	100%

위表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餘暇利用에서 가장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讀書”로 나타나 있다. 果然 讀書가 餘暇利用의 한 方便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에 對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여가이용이란 주로 動的인 利用狀況에서 把握해야 될 것이지만 讀書란 가장 靜的인 것이며 뿐만 아니라 學生으로서의 每日 책을 對하는 것이 하나의 生活이므로 과연 어떤 책을 읽는 것인가가 問題가 될 것이다. 즉 餘暇란 自己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어야 하므로 여기서도 自己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다는 것에 즐거움이 있었으므로 어떤 研究的인, 學問的인 것으로부터 떠난 홀가분한 氣分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을 全部 包含시켰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音樂鑑賞인데 應答者中 1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讀書나 음악감상이나 간에 가장 靜的인 狀態속에서 여가를 배우고 있다는 結論이 되는 셈이고 其他 活動的인 여가이용은 그리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한가지 特異한 것은 “스포츠”가 “클럽”이나 課外活動보다는 오히려 약간 比重이 가볍다는 事實이다. 오늘날의 大學生들은 過去의 大學生들보다 어느 면에선가 日常生活에 있어서 결과는 달리 活氣가 不足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 理由는 現在에는 大學生의 數가 엄청나게 增加함은 勿論이며 따라서 그 父母들이 반드시 經濟的인 富裕層으로만 構成된 것이 아닐 뿐더러 繼續되는 社會的 經濟的 不安과 混亂속에서 學校生活이 반드시 愉快한 것으로만 되고 있지는 않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와 反對로 「스포츠」보다 클럽 및 課外活動이 오히려 上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學生生活이 어느 點에서인가 政治的(?)인 性格이 濃厚하다는 表示로 解釋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것은 亦是 社會와 歷史的 作用의 所産일 것이며 그만큼 오늘날의 大學生은 社會的으로 訓練(?)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異性 交際에 있어서도 全體의 約 4.2%정도가 많진 적진 간에 異性 친구와 交際를 하고 있다. 오늘날의 大學生들은 餘暇利用에 있어서 異性交際의 頻度가 過去보다 確實히 많을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

무슨 餘暇를 利用하기 爲한 一般的인 手段이 靜的인 것으로부터 動的인 娛樂에 이르러 가지 여려가지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즐기기 爲해서는 自己自身 혼자가 아니면 누군가 相陪가 있어야 할 것이다. 調査한 바에 依하면 가장 많은 것이 “同性친구끼리”로서 全體의 55.3%이고, 다음이 “혼자서”가 24.7%이다. 그리고 “異性친구와 더불어” “애인과 더불어” “家族끼리”가 각각 5.5%, 3.8%, 6.3%로서 別로 눈에 띄울만한 程度가 못 된다. 이것을 女大生만의 調査結果에 依하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表가 나온다.

영화 meeting 오락은 누구와 함께 즐기나

<表6>

동반자별	종류별	영 화 (%)	meeting (%)	기타 오락 (%)		
동	성	친	구	62.5	48.2	10.1
타	인	및	이	15.2	25.2	3.5
가			성	8.9	3.8	23.0
친			구	3.6	8.1	42.5
기			족	7.3	5.4	1.8
무			자	2.5	9.3	19.1
			타	(100.0)	(100.0)	(100.0)
	응	답				
	계					

즉 本調査의 경우, 特히 差異가 나는 것은 “同性친구끼리”에 있어서 歷到的으로 많은 것이 女學生 (36.5%)이 男學生 (62.1%) 보다 많고, 그리고 藝能系 (14.9%)가 自然科學系 (6.8%)나 人文社會科學系 (5.2%) 보다 3~4倍程度로 많다는 것은 注目할만한 事實이다. 比率의으로 보면 女學生이나 藝能系가 보다 家族的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視野를 달리 돌려볼 때 男學生이나 人文社會科學系 및 自然科學系는 보다 外向的이고 社交的이라는 結論이 될 수도 있다. 大體的으로 以上과 같은 周覽에서 여가가 利用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具體的 事項에 關해서 그 內容을 살피고자 한다.

### 3. 各클럽의 組織活動

國家的으로 또는 社會的으로 볼 때 政黨社會團體, 各種 組合 等 數많은 組織체가 있겠으나 學校의 경우 대개는 各種클럽 活動에서 시작되고 있다. 全體學生中 클럽活動에 參加하고 있는 學生은 半數 以上인 51.8%이고 클럽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學生이 45.4%이다. 이것이 男女別에서는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參加도가 越等 많아서 女學生이 41.4%인데 反하여 男學生은 55.4%가 된다. 다시 專攻別로 볼 때 클럽參加에서 가장 낮은 比率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藝能系로서 36.2%이며 自然科學系와 人文社會科學系가 各各 55.4%, 51.7%이다.

여기서 하나 特異한 것은 自然科學系보다는 人文社會科學系가 보다 比率이 높을 것으로 推測되나 結果는 그와 反對가 되어 있다. 클럽활동이라는 것은 一種의 政治的(?) 社交的 性格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自然科學系보다 人文社會科學系가 보다 政治的이고 社會的이어야겠는데 實際에 있어서는 自然科學系가 보다 더 比率이 높다. 이와 같은 傾向은 비단 클럽活動 뿐이 아니라 音樂愛好에 있어서도, 撞球에 있어서도, 社交댄스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飲酒에 있어서 까지도 그러하다. 이와 같이 自然科學系가 위에서 말한 것에 있어서 보다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偶然한 現象이기보다는 專攻의 性格上的 差異에서 오는 結果라고 解釋해야 될 것이다. Humanity와 感情 및 情緒에 恒常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自然科學系는 더우기 20代의 激昂하기 쉬운 感情의 突出口를 專攻을 떠나 다른 方法과 行動에서 이를 求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過히 推測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反證으로 前述한 바와 같이 感情과 情緒를 專攻科目中에서 항시 되찾고 있는 藝能系에서 클럽活動에의 參加度가 지극히 낮은 것을 하나의 例라고 할 수 있겠다. 大體的으로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클럽의 性格은 <表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同性間의 親睦”을 爲한 것이 가장 많아서 클럽소속 學生總數의 29.4%이며 다음 “特殊專攻分野의 同人클럽”이 27.2%, “社會活動의 性格을 띤 클럽”이 18.2%이고, “異性間의 親睦과 交際를 爲한 클럽”도 13.4%나 된다. 그리고 9.8%가 “外國語訓練을 爲한 클럽”이며 “其他가 18%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소속 비율 사이에 있어서의 男女別, 專攻別의 特別한 差異로 눈에 띄울만한 것은 別로 없고 다만 “社會活動의 性格을 띤 클럽”에서 男學生의 18.4%가 女學生의 14.3%보다 若干 많은 程度이며 “特殊專攻分野의 同人클럽”의 경우 自然科學系가 34.4%로 人文社會科學系의 21.7%와 藝能系의 23.5%보다 약간 높은 程度이다. 이들이 클럽에 모이는 參加度數는 한달에 한번 정도가 가장 많아서 클럽소속 학생총수의 31.8%이며 다음이 一週日에 한번 程度가 31.3%, 한달에 두번 정도가 22.5%, 한 달에 세번 네번以上이 각각 3.2%, 8.0%이다. 이렇게 보면 클럽活動은 그 參席頻度數로 보아 相當히 자주 모이는 便이고 그만큼 學生生活에 있어서 比重이 큼을 알 수 있다. 그 證據로 클럽모임에의 誠實性 如否에 있어서 적극 “참여한다”는 學生이 全體의 64.4%나 되고 “보통”이 27.8%, 그리고 “傍觀하는 程度”가 不過 7.8%에 불과함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만 클럽참여의 熱誠度에서 크게 差異가 나는 것은 專攻別에 있어서는 別로 눈에 띄울 程度가 아니나 男女學生間에 있어서는 多少 差異가 甚한 편이다.

<表8>에서 보는바와 같이 “熱誠도가 높은 것”이 男學生의 경우에 72.1%나 되는 것이 女學生의 경우는 38.8%에 不過하며 “傍觀程度가 男學生의 경우 5.2%에 不過한데 反하여 女學生은 16.4%나 된다. 이것은 社會活動에 있어서의 男女間의 活動能力과 活動範圍와 生活樣式的 制限에서 부터 오는 結果일 것이다. 이들이 클럽活動을 爲해서 使用하는 場所에 있어서는 學生다운 면모가 如實히 엿보인다.

소속 club 의 성격

<表7>

club의 성격	비 율	
	학 생 수 (club 소속자수)	
	실 수	백 분 비 (%)
등성간의 친목과 교재를 위한 club	147	29.4
이성간의 친목과 교재를 위한 club	67	13.4
사회 활동을 위한것	91	18.2
외국어 훈련을 위한것	49	9.8
특수 전공분야	136	27.2
기 타	9	18
계	500	100 %

club 참여의 열성도

<表8>

열성도	비율	club 소속 학생		남 학생 (A)		여 학생 (B)	
		실 수	백분율	실 수	백분율	실 수	백분율
적 극 적		322	64.4	277	72.1	45	38.8
보 통		139	27.8	87	22.7	52	44.8
방 관 경 도		39	7.8	20	5.2	19	16.4
계		500	100 %	384	100 %	116	100 %

club 회합의 장소

<表9>

회합 장소별	비 율	
	학 생 수 (club 소속자)	
	실 수	백 분 율 (%)
회원 자택	71	14.2
회원의 타인가 차용	87	17.4
회사, 사무실 사용	4	0.8
공공 기간 사무실	5	1
다 방	60	12
교내 강의실	82	16.4
수시 번동	123	24.6
기타 장소	68	13.6
계	500	100 %

<表9>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自己들이 소속되어 있는 學校講義室이 가장 많고 다음이 클럽會員의 自宅이다. 그리 많지못한 用돈에서 據出되는 會費로서는 버젓한 場所가 마련될 수

없는 것은 當然한 일이겠고, 따라서 茶房을 會合場所로 利用하는 것도 12%나 된다. 여기서 특기 할만한 현상중의 하나는 專攻別로 볼 경우 “會員의 自宅”를 利用하는 것은 藝能系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藝能系學生中 41.2%나 되는데 自然科學系나 人文科學系는 各各 19.4% 15.1%로 그리 많지 못하다. 그러나 “學校講議室을 利用하는 경우는 이와 正反對로 藝能系가 不過 5.9% 인데 대하여 自然科學系와 社會科學系는 各各 23.1%, 26.9%라는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곧 專攻의 性格上 藝能系는 學校講議에서의 클럽會合이 맞지 않는데 反하여 自然社會科學系는 學究 自體의 性格上 學校講議室이 제법 適合할 수 있는 性質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 볼 問題는 클럽에 加入하고 있지 않은 理由를 물어본 結果는 各樣各色인데 그中 重要的 것 몇가지를 추려보면 다음 <表10>과 같다.

club 에 참여 하지 않는 이유

&lt;表10&gt;

무가임 이유	비 율	
	실 수	백 분 율 (%)
무 관 심	24	5.9
무 기 회	33	8.1
무가치, 무의미	72	17.8
시 간 없 음	71	17.5
club의 성격이 맞지 않음	48	11.9
본인의 성격관계	17	4.2
귀찮아서	7	1.7
비용이 없음	7	1.7
기 타	8	1.8
무 응 답	118	29.1
계	405	100 %

<表10>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클럽自體가 하등 “價値가없고 無意味하다”는 것이 가장 많아 17.8%를 나타내고 있고 그와 비슷한 程度는 “時間的 餘裕가 없다”는 것이 17.5%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 “無價値” “無意味하다”는 것 중에서는 「시시하기때문에」 異性交際의 機會를 利用하는 傾向이 濃厚하기 때문에 「어떠한 第三의 勢力에 利用할려는 氣色이 엿보이기 때문에」等等이 그 理由가 되어 있고 “時間이 없다”는 것 중에는 “공부할 時間을 빼앗기기 때문에”等等이 그 理由가 되어 있다. 그리고 클럽의 性格이 맞지 않는다는 理由의 內容을 形成하고 있는 것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幼稚하다」 「別效果없는 모임으로 時間만 浪費한다」 등으로 클럽自體가 組織에 있어서나 活動에 있어서나 業績에 있어서 아직도 不完全하고 未熟한 點이 많아 참여 할 意欲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主要한 內

容이 되어 있다. 다음으로 全體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無機會에 있어서는 「클럽참가를 권유해 줄만한 친구가 없다」거나 「本人의 性格이 消極的이어서 아직 機會를 얻지 못했다」는 것 등이 그 主要한 內容이 되어 있다. 그리고 “費用關係”로 참여를 못 한다는 學生이 不過 1.7%로 極히 少數를 차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卽 濟州道의 大學生들은 其中 半以上이 클럽에 참여하고 있다고 본다. 半에 약간 未達되는 學生이 참여를 안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學生들의 클럽性格도 제법 社交的이고 親睦을 圖謀하고 있으며, 專攻分野의 活動도 無視 못 할 程度이다. 그런가 하면 참여를 안고 있는 學生들中 大部分이 “無價値” “無意味”를 그 理由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참여자와 不참여자와의 사이의 클럽에 對한 解釋이 相當한 距離를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클럽活動에 對한 意欲은 旺盛한데 클럽組織에 經濟力이 隨伴되지 못하는 關係로 클럽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데 原因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對한 하나의 反證으로서 클럽에 參加하지 않는 理由로서 “無關心을 들고 있는 것이 不過 5.9%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가 클럽에 對하여 일단 評價와 解釋을 내린 結果 取해진 應答이고 볼 때 클럽참여에 對한 意欲이 當初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상 싶다. 또한 費用이 없다”는 理由는 더욱 적어서 不過 1.7%뿐인데 이것은 클럽活動에 그다지 많은 金錢費用이 必要없기 때문이다. 費用이 僅少하다는 것은 學生들 自身이 當初부터 學生層이란 被保護者로서 비용부담능력이 지극히 박약한 存在들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본즉 어느 限度까지의 經費가 마련되어야 할터인데도 不拘하고 거의 經費없이 움직이는 클럽活動이 제대로 제 구실을 할 리 만무하다. 事實 大學生들의 클럽活動이란 여러가지 意味에서 뜻있고 重要的 것이다. 그러면서도 社會에서 거의 等閑視하고 있고 이에 對한 正常的인 發展育成과 指導에 外面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問題이다.

#### 4. 音樂鑑賞活動

음악감상에 있어서는 世界 어느 곳에서나 거의 共通的인 現象이겠지만 “좋아한다”는 學生이 歷到的으로 많아서 全體의 75.0%나 되고, “그저 그렇다”가 15.6%이며 “좋아 하지 않는다”가 1.3%서 不過하다. 音樂을 좋아하는 學生中 男女別로 볼 때 各各 73~74% 程度로 비슷하나 이것을 專攻別로 볼 때, 人文社會學系와 自然科學系에 比해서 藝能系가 93.6%로 歷到的인 높은 率을 차지한 것은 한편 當然한 일이기도 하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藝術觀이나 其他 모든 價値觀은 所謂 現代的 風潮라는 面에서 볼 때 古典이나 傳統主義로 부터 相當히 遊離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一般的 現實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社會의 豫想과는 달리 音樂의 경우 全體의 42.3%가 西洋古典音樂을 좋아한다. 다음 表 <表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現代音樂愛好家가 27%이고 歌謠類가 18.6%이다. 反面에 藝術性이 極히 稀薄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大衆歌謠도 7%程度나 되고 보니 아직 大學生들의 藝術에 對한 價値觀

으로는 多少 虛點이 있어 보인다.

〈表11〉

경향별 음악감상 비율

경향별	비율		전체학생 (A+B)		자연, 사회과학계		예능계 (B)	
	실수	백분율	실수	백분율	실수	백분율	실수	백분율
서양고전음악	211	42.2	192	41.1	20	60		
현대음악(재즈음악제외)	135	27	130	27.8	6	18.2		
재즈류	93	18.6	88	18.8	6	18.2		
한국대중가요	35	7	34	7.3				
국악	16	3.2	14	3				
무응답	10	2	9	1.9	1	3		
계	500	100 %	467	100 %	33	100 %		

그러나 韓國古典으로서의 國樂愛好家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어서 全体の 3.2%程度가 되는 데 이點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이것을 다시 男女別로 볼 때 다른 點은 別로 큰 差異가 없으나 韓國大衆가요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 男學生의 경우 男學生 全体の 9.2%가 大衆歌謠팬인데 女學生은 1.0%에도 未達이다. 이것은 數字的面에서 單純한 評價를 내린다면 女學生이 男學生 보다는 藝術的 價値觀이 高次的인 것 처럼 말할 수 있겠으나 元來가 韓國의 大衆歌謠란 女性의 生活樣式이나 生理에 잘 맞을 수 없는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 경우의 大衆歌謠란 女性에게 보다는 男性趣向에 立脚한 大衆的 性質을 띄우고 있다는 점을 勸察해야 할 것이다. 反面 이것을 專攻別로 볼 때 特別히 눈에 띄우는 것은 自然科學系와 人文社會科學系가 여러 면에서 거의 비슷한데 反하여 藝能系의 경우 西洋古典音樂의 比率이 越等높아서 藝能系 全体の 63.8%나 되어 다른 專攻보다 거의 20%程度나 上廻하고 있으며 大衆歌謠나 國樂은 調查結果로는 한 사람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各自의 專攻에 따른 性格上 當然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 이들은 대개 음악감상실의 場所로서 자기집을 가장 많이 擇하고 있으며 野外나 校庭도 利用하는 수가 있다.

## 5 映畫의 影響

오늘날과 같이 매스컴과 여러 산업이 高度로 發達한 社會에 있어서의 映畫만큼 大衆들에게 널리 利用되는 것도 없을 상 싶다.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이 여가형성의 여건이 不完全하고 따라서 餘暇産業이 無에 가까운 程度로 幼稚한 곳에서는 映畫야말로 여가 산업중의 王座를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Neumeyer氏는“映畫를 보면 情緒的인 興奮을 느끼며 睡眠中의 運動量은 男子가 平常時의 約 26% 女子는 約 14%가 增加한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영화를 보는 度數를 6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一週일에 한번 보나 마나할 程度



가 大部分을 차지하여 53.8% 程度이다. 다음의 週1回程度가 25.7%로 第2位이고 “2~3回程度”도 8.4%나 된다. 그런가하면 “全然보지 않는다”고 映畫를 完全히 外面한 率도 7.3%나 된다. 이것을 男女別로 볼때 男學生中 全然 보지않는다고 한 사람이 7.9%인데 대하여 女學生은 5.9%이다. 이것은 女學生이 男學生보다는 映畫觀覽回數가 若干 더 많다는 것으로 解釋된다. 이에대해서 藝能系는 한 사람도 없고 보면 度數가 많건 적건間에 藝能系는 거의 빠짐없이 映畫를 본다는 結論이 된다. 映畫를 觀覽하는 學生들만을 相對로하여 觀覽하는 映畫의 國內產品, 外國產品別로 본 結果, “外國映畫가 男女別 專攻別 할것 없이 壓倒的으로 많아 62.1%를 차지하고 있으며 “國產映畫”는 不過 3.8%로 內外에 1:16.3이라는 觀覽比率의 엄청난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所謂 外畫一擧到의 傾向이 나타나게 된 原因으로 몇가지 理由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理由의 하나가 “技術이 不足하다”(28.1%)는 것이고 다음이 “原作自体가幼稚하다”(24.2%)이며 그다음이 “俳優의 演技가 서투르고” “製作費가 貧弱하다”는 것이 各各 18.8% 18.3%등으로 되어 있다. 또 이들이 좋아하는 傾向에 따른 映畫는 다음 表(表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뭐나 뭐나 해도 愛情映畫로서 全體의 35.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女學生의 比率이 男學生보다도 높아서 女學生의 46.2%가 愛情映畫이고, 男學生은 31.4%정도이다. 다음이 音樂映畫인데 이것도 女學生이 22.4%로 男學生의 12.8%보다 훨씬 높다. 男女學生을 不問하고, 大體的으로 愛情映畫나,

좋아 하는 영화

(表12)

영화종류	비율	전체 학생 (A+B)		남 학생 (A)		여 학생 (B)	
		실 수	백분율	실 수	백분율	실 수	백분율
애정 영화		179	35.8	112	31.4	66	46.2
활극. 액션		90	18	73	20.4	17	11.1
스릴러. 공포		43	8.6	36	10.1	7	4.9
전쟁		36	7.2	31	8.7	5	3.4
음악		78	15.6	46	12.8	32	22.4
역사. 시대		41	8.2	33	9.2	9	6.3
무응답		33	6.6	26	7.3	7	4.9
계		500	100 %	357	100 %	143	100 %

音樂映畫같은 靜的이고 感情的인 것을 좋아하는 傾向이고 이것은 곧 學生이란 點과 20代의 年齡에서 오는 結果일 것이다. 反對로 가장 싫어하는 것이 戰爭映畫인데 全體의 7.2%이다. 이것은 當然한 結果이지만 女學生의 3.4%보다 男學生이 8.7%로 높다. 이 世代들이 直接 大戰의 經驗은 없다고 해도 二次大戰後의 歷史가 이들로 하여금 戰爭이 얼마나 嫌惡할 만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이 兩斷된 分裂國家로서 가지는 社會의 不安과 混亂을 經驗한 젊은이들에게

는 戰爭은 確實히 憎惡의 象徴으로 보아진다. 또 이들이 映畫館에 갈 때에는 다른 사람과 同伴해서 가는 경우가 大部分으로 全體의 67.7%이며 혼자서 간다는 것이 23.9%이다. (其他… “無應答”) 이들이 同伴해서 映畫館에 갈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大概의 경우가 “同性친구” 끼리(54.8%)이고 “異性친구”나 “愛人”과 더불어가는 경우는 各各 13.8%, 8.0%이다. 그러나 “家族”들과 더불어 간다는 것은 가장 적어 不過 3.9%밖에 되지 않는다. (其他… 친척, 선배, 無應答) 確實히 學生들 뿐 아니라 大體로 우리나라 國民들은 餘暇를 메꾸고 利用하는데 있어서 家族들과 더불어 즐기고 어울리는 傾向이 워낙 적다. 前述한 바와 같이 全體的인 여가利用에 있어서도 “家族과 더불어” 즐기는 사람은 不過 6.3%에 지나지 않았는데 映畫觀覽에 있어서는 더욱 적어서 3.9%에 不過하다. 原則적으로는 가장 많아야 할 것이 “家族과 더불어” 여가를 즐겨야 할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家族成員의 構造나 生活樣式 및 消費水準은 學生層뿐 아니라 一般社會成人들 自身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家族과의 여가 利用은 거의 外面하고 있는 實情이다. 實際로 家族과 어울리는 問題에 있어서는 비록 大學生이긴 하지만 아직 被扶養狀態에 있는 學生層보다는 그래도 家計의 責任者들에게 있다고 하겠는데 이들 家父長들은 家族成員에 對한 物質的 扶養以外 餘暇善用 및 享樂의 뒷받침을 위한 餘裕가 없는 것이 實情이기도 하다.

## V 結 論

以上の 여러가지 學生들의 餘暇活動을 통해서 보다더 自身들의 人格啓發을 爲한 問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안다.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餘暇問題를 우리들의 實情에 비추어 論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時期尙早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所得이 낮고 餘暇가 形成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있는 대로의 餘暇를 利用하는 態度와 方式에 對해서는 決코 無視해 버리고 말 性質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왜냐 하면 社會의 行爲나 態度 및 이에 앞서는 思考方式 價値觀 등은 앞으로의 再生産을 爲해서 重要な 原因의 役割을 擔當할 것이기 때문이다. 特히 青年後期에 처해있는 大學生은 身體적으로는 教育 발달의 最後成熟段階에 놓여 있으며 人間生活의 단계적으로 成人에 이르는 과도단계에 놓여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心理적으로는 社會的인 요구(독립에의 요구) 成就의 요구 社會的 承認에의 요구 등을 滿足시키기 爲하여 갈등이 북받쳐 오르는 時期인 것으로 안다. 이런 意慾과 갈등은 身體的 要因이 해방한다는 뜻으로 表現하겠다. 그러므로 이 時期의 餘暇活動問題는 그들의 身體的 要因에 對한 慾求의 滿足과 더불어 社會的 調和 및 自身の 向上 發達이 促進요구되며 아울러 이러한 욕구를 滿足시킬 能力의 向上이 必要하게 된다. 大學生層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適用시킨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볼때 不自然하고 無理가 隨伴되는 點도 없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間接的인 面에서 社會所得과 全然 無關한 것이 아닐뿐더러 大學生들은 그들대로의 社會的 歷史的 比重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餘暇利用의 方式과 態度에 對한 問題는 本人들이나 父兄의 問題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國家的으로 社會面으로 無關心한 問題가 될 수 없다. 今般의 調査는 大學生들의 餘暇利用에 對한 諸方式을 地方(濟州道) 大學生을 爲主로 하여 客觀的인 事實들에 對한 量的把握을 主目的으로 하여 作成한 것이다. 따라서 事情이 許諾하는대로 그들의 態度面과 內在的인 價値觀問題에 對한 調査와 아울러 社會一般의 餘暇形成에 關한 問題며 都市學生과의 比較研究 등을 繼續하여 學生에 局限되지 않는 一般國民들에게도 Recreation Movement를 展開할 때는 왔다고 생각한다. 特히 農村의 近代化 및 繁榮을 가져오기 爲한 새마을 運動은 遼遠의 불꽃과 같이 全國 坊坊曲曲에 퍼져가고 있다. 이 새마을 運動의 一環으로서 各 農村의 能率向上과 協力體制의 強化를 爲해서 地域社會 레크리에이션의 普及은 時急한 課題의 하나라고 믿는다. 그러기 爲해서는 政府는 餘暇運動에 인색함이 없이 行政的으로 支援하여 政策的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레크리에이션은 各者에게 限定되고 있다는 認識에서 脫皮하여 앞으로 社會의 福祉事業의 一環으로서 計劃하고 이를 推進하여야 할 줄 믿는다.

### 參 考 文 獻

1. John L. Hutchinsan Principle of Recreation The Ronald Press Company 1951.
2. Gisela Kunopka Group work in the Institution Association Press New York 1953.
3. Meyer & Brightbill Recreation Administration Prentice-Hall Inc. 1956.
4. Neumeyer, M.H. & Neumeyer, E.S. Leisur and Recreation Ronald Press Company 1958.
5. Charles, A, Bucher Foundation of Physical Education C.V. Mosby, Company, 1960.
6. 日本Recreation協會 Recreation指導教本 1970.
7.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1970.
8. 梨大體育學會 梨大體育學會誌 1971.

— Summary —

## A Study on the recreationar acivitys of college students

*by Bai Young-ho*

Mass Leisure does not simply the sun total of unoccupied time but the time reserved to enjoy life with sufficient income and purchasing power.

Leisure therefore, is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and income level of the community, and is directly related to consumer patterns. In principle, the use of leisure shall be the object, and labor shall be a means to this end. However the level of incomes in Korea is low, due to under the type of industrial structures and industrial under development.

Therefore, the use of Leisure in our communities is hardly a problem at the present level of Korean incomes. In a study of the Leisure of Korean college students, it was found relate note industry, but indirectly to the incomes of their parents.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and historical mo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no matter what country, must be recognized. and it would wise to observe their use of Leisure time.